

花 石 亭

李珣(栗谷)

林 亭 秋 已 晚  
騷 客 意 無 窮  
遠 水 連 天 碧  
霜 楓 向 日 紅

山 吐 孤 輪 月  
江 含 萬 里 風  
寒 鴻 何 處 去  
聲 斷 暮 雲 中

숲속 정자에 가을은 이미 깊어  
시인의 시심(詩心)은 끝이 없구나  
멀리 강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
서리 맞은 단풍 해를 향해 붉구나

산위에 둥근달이 둥실 떠오르고  
부는 바람은 강물이 머금네  
저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지  
석양 속으로 울음소리 사라지는 구나